

# Industrial Internet Issue Report

— Fintech 편 —

# CONTENTS

## 심층 분석 보고서

- 글로벌 핀테크 산업동향 - 미국편

## 동향 보고서

- 중국 온라인 P2P 대출, 영세·불법 사업자 시장 진입으로 부작용 심각
- 엑센추어(Accenture),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시
- 생체 인식 기술, 핀테크 산업 활성화의 핵심 기재로 지목

심층 분석 보고서

# 글로벌 핀테크 산업동향 - 미국편

I. 미국의 핀테크 산업 현황

II. 미국의 주요 핀테크 기업 및 기술 현황

III. 미국의 핀테크 규제와 발전전략

## I. 미국의 핀테크 산업 현황

### 1) 미국의 핀테크 산업 투자 규모 및 현황

글로벌 핀테크 시장은 전통 금융 강국인 영국, 유럽, 미국, 중국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핀테크 기업 수, 투자 규모 등에 있어 압도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핀테크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2014)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주요 핀테크 기업 수는 2014년 기준 미국 374개, 영국 57개, 싱가포르 15개, 중국 10개, 홍콩 7개, 일본 4개로, 미국의 핀테크 기업 수에서 타 국가 대비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_ 전세계 핀테크 기업 수



출처 : 벤처스캐너, 매일경제(2014년 8월 19일); 금융감독원(2014), '인터넷 모바일뱅킹과 금산분리' 재인용

컨설팅업체 엑센추어(Accenture)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전 세계 핀테크 산업 대상의 투자규모는 전년 대비 201% 성장한 122억 1000만 달러(13조 1,244억원)를 기록하였으며, 미국은 작년 한 해에만 100억 달러에 가까운 자금을 핀테크 산업에 투입하며 타 권역의 투자 규모를 압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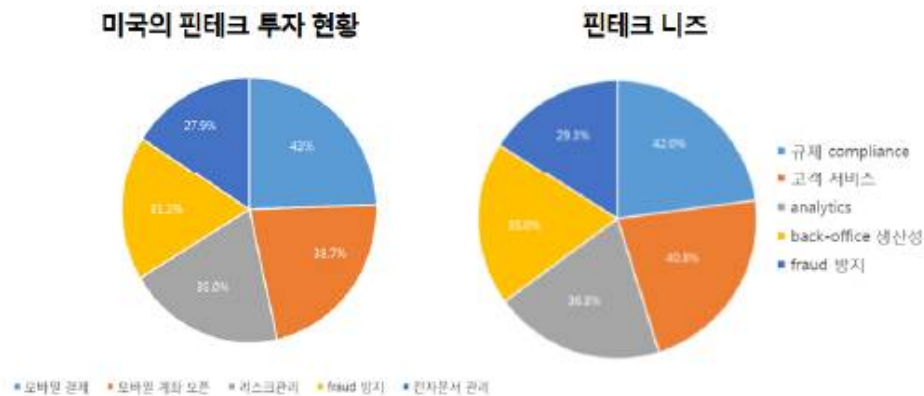
그림 2\_ 글로벌 핀테크 투자 현황



출처 : Accenture, CB insights

미국의 핀테크 분야별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으로 모바일 결제 42%, 모바일 계좌 38.7%, 리스크 관리 35%, 사기 방지 31.2%, 전자문서 관리 27.9% 이나, 향후 5년간 핀테크 니즈는 규제 42%, 고객 서비스 40.8%, 데이터 분석 36.3%, 백오피스 생산성 향상 35%, 사기 방지 29.3% 등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아메리칸뱅크(American Banker)는 예상하였다.

그림 3\_ 미국의 핀테크 투자와 니즈



## 2) 실리콘밸리와 뉴욕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미국의 핀테크 산업

최근 미국 정부는 실리콘 밸리의 기술과 뉴욕의 금융이라는 두 지역의 장점을 살려,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막대한 정책 지원을 하고 있다. 핀테크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 보면, 실리콘

밸리의 핀테크 산업은 주로 태동기에 필요한 벤처 캐피탈의 금융지원 위주로 이루어지며, 뉴욕의 핀테크 산업은 태동기 이후 대형화를 도모하는 성장 후기 단계에 필요한 금융서비스 등에 대해 대형 투자은행의 투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뉴욕과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미국 핀테크 산업 생태계 육성 역량을 비교하면, 표1에서 보는 것과 같다.

표1. 뉴욕과 실리콘밸리의 산업 생태계 육성 역량 비교

	뉴욕	실리콘밸리
정부 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tart-up America: 기업, 대학, 창업자, 재단, 전문가 연계</li> <li>미국 투자 인센티브 제도 (SSBCI : State Small Business Credit Initiative)</li> <li>NY Fund : Seed(\$45m), State Fund(\$35m), Goldman Sachs(\$10m), Private Investment(\$450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이디어를 사업으로 이끄는 정부지원 펀드 활성화</li> <li>정부, 민간, 학계가 연계된 펀딩 시스템은 ICT 발전의 원동력</li> </ul>
비자, 이민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tart-up 비자(2013.06) : 현재 미제정</li> <li>Start-up을 지원하는 다양한 종류의 비자 및 이민정책</li> </ul>	
세제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TRA(American Taxpayer Relief Act) 세금 우대</li> <li>Start-up NY : 10년 간 100% tax fre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TRA(American Taxpayer Relief Act) 세금 우대</li> <li>감가상각, R&amp;D, 합병 등의 세제 혜택, 소형주 양도차익 면제</li> </ul>
자금조달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근 5년간 핀테크 투자 CAGR 31%</li> <li>풍부한 정부 금융지원</li> <li>투자은행 등 대형 금융기관의 금융서비스</li> <li>다양한 자본 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nDeck : peer-to-peer 대출 플랫폼, \$1 billion규모의 대출 성장</li> <li>LearnVest : 개인 금융 플랫폼, \$28 million VC funding</li> <li>Kickstarter : 크라우드 펀딩, \$1.1 billion, 6,4million 투자자, 63,000개 프로젝트, \$10million VC fund</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기적 관점의 금융서비스가 상대적 취약</li> <li>금융기관 연계 핀테크 펀딩 능력은 취약하나 강한 기술력으로 세계 최대의 핀테크 투자 유도</li> <li>타지역 벤처 허브의 자금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0% 이상의 Venture capital 딜, 50% 이상의 테크 Start-up자금을 7개 주요 허브(뉴욕, 메시추세츠 등)에서 조달</li> </ul> </li> </ul>
ICT기술 및 인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뉴욕 경제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4년 Cornell 과학기술 캠퍼스 설립(뉴욕시 부지와 \$100million 제공)</li> <li>2013년 Carnegie Mellon 대학교 Sciences program</li> <li>2012sus Columbia 대학교 과학기술 institutes 설립</li> </ul> </li> <li>글로벌 기업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2년 Google 22,000sq 부지 기증(Cornell NYC Tech 캠퍼스)</li> <li>Google, Facebook, Twitter, Amazon, eBay 등 글로벌 기업의 뉴욕 사무실 및 인력 확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숙련된 전문가와 기술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5% 이상이 석사 이상의 고학력</li> <li>과학기술 분야 60% 이상이 대학 졸업자</li> <li>학생의 인턴십 채용 활성화, 전문가 양성으로 연결</li> </ul> </li> <li>강한 교육기관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탠포드, MIT, Yale 등 top tier 교육기관과 강한 연계</li> <li>핀테크 Start-up에 요구되는 인재 양성 및 기술 지원</li> </ul> </li> </ul>
비즈니스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진 금융기관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리콘 밸리보다 2배 빠른 핀테크 성장의 원동력</li> <li>Start-up 기업과 accelerators들이 선호하는 환경을 제공</li> </ul> </li> <li>고객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핵심 기술을 지닌 창업가가 쉽게 고객에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li> </ul> </li> <li>글로벌 투자자 네트워크 활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테크 Start-up 허브의 글로벌 리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첨단 기술과 숙련된 기술자가 집약</li> <li>초부유층(HNW) 자산가 거주 지역</li> </ul> </li> <li>핀테크를 지원하는 글로벌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pple, Cisco System, eBay, Google, HP 등</li> </ul> </li> <li>발달된 Start-up ecosyst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vestors, Accelerators, Incubators 등</li> <li>투자자와 기업가의 시너지(금융지원 기술 지원 등)</li> </ul> </li> <li>도전적 기업가 정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테크 혁신의 공간</li> </ul> </li> </ul>
기타	- SBDCs(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s) 운영	

## Ⅱ. 미국의 주요 핀테크 기업 및 기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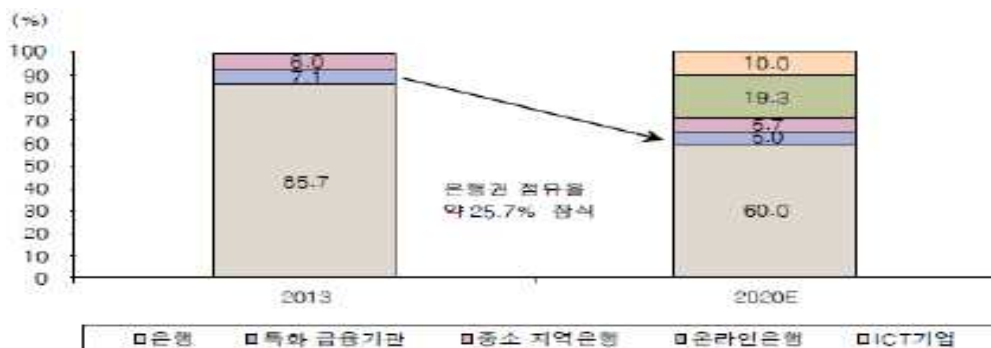
### 1) 비금융권 기업들의 핀테크 산업 진출

핀테크(fintech) 산업은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결합으로, 스마트폰 확산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금융 관련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즉, 기업 입장에서 투자 가치가 충분한 사업이며, 이에 따라 기존 금융권, 플랫폼 업체 등 스타트업들도 핀테크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미국에서 전통적인 금융권의 핀테크 투자는 'FinTech Innovation Lab'을 중심으로 핀테크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에 액센추어 및 뉴욕시 파트너십 펀드가 공동 개설한 이후, 2012년에는 런던에 개설, 2014년에는 아-태 지역에 개설되었다. 핀테크 이노베이션 랩은 미국 15개 주요 금융기관과 벤처캐피탈, 시나 정부 기관이 참여하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7~8개 핀테크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IT 기업 외 비금융권 기관은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 및 플랫폼이 등장하고 확산되면서,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기반으로 전통적인 은행의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 제공에서 더 나아간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이베이,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이 전자상거래, 스마트폰 플랫폼, SNS의 영역에서 지급결제, 전자지갑, 전자화폐 등의 금융업 분야로 사업 확대 중이다. 액센추어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미국 금융시장은 2013년 대비 25% 이상이 핀테크에 의해 잠식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림 4\_ 미국의 금융시장점유율 변화 전망



출처 : Accenture; 삼성증권 재인용

## 2) 핀테크 분야별 주요 기업 및 기술 동향

핀테크 산업은 서비스에 따라 결제, 송금 등의 지급결제 영역과 예금, 대출 영역 그리고 투자자문 등 기타 금융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1]. 최근에는 지급결제 및 예금, 대출 영역 이외에도 소비자들이 기업에 직접 투자하고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의 서비스와 자산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1]. 구체적으로 핀테크 분야별 미국 주요 기업 및 기술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지급결제(Payment), 모바일결제(Mobile Payment)

미국 핀테크 시장은 온라인 상점의 지급결제(전자상거래)를 위한 방법으로 시작되었으며, 지급결제 사업자 및 서비스 방식으로 PG(Payment Gateway), OTT(IT 플랫폼), 카드, 통신사, 신규 창업기업 등이 있다. 대표적인 성공사례인 페이팔은 1998년 설립된 전자결제 전문업체로, 신용카드를 페이팔 계정에 등록하여 본인인증 후 이메일과 비밀번호만 이용하여 결제가 가능하게 한 서비스를 시작으로, 2002년 이베이에 인수되었으며, 최근에는 빅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리서치 업무의 자동화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지급결제 서비스는 실시간 온라인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폰의 보급 확산과 함께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로 확대되며 급속히 성장 중이다. 모바일 지급결제 구현 방식으로는 모바일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전자지갑, 모바일 지급결제 등이 있으며, 현재 Stripe, Venmo, Square 등 간편하고 안전한 다양한 서비스 모델이 등장하여 경쟁하는 상황이다.

표 2. 형태별 모바일 결제 구현 방식 및 기능

방식)	구현 및 기능
모바일 신용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접촉식 IC칩 내장한 USIM에 카드 정보 수록, NFC리더기를 통해 결제</li> <li>- 온라인에서는 PG업체를 통해 다른 금융 정보와 공인인증서 연동하여 결제</li> <li>- 본인 인증을 위한 지문 등 수단 보완 필요</li> </ul>
휴대전화 소액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대전화 번호와 가입 주민등록번호만으로 결제, 요금은 휴대전화 요금에 합산</li> <li>- 소액 결제만 가능, 이체 등은 불가능</li> </ul>
전자 지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폰 앱에 카드 정보를 입력해 온라인 결제 시 사용, 결제기능 외에도 할인 쿠폰, 마일리지 적립 등 부가기능 함께 이용</li> <li>- 이동통신사, 금융회사, 스마트폰 제조 회사 등 대부분 결제 관련 기업에서 제공</li> </ul>
모바일 간편 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마트폰 OS, 결제 앱을 활용한 결제</li> <li>- 사이트 아이디를 기준으로 아이디에 등록된 결제 정보를 바탕으로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결제 가능</li> <li>- 공인인증이나 액티브X가 필요 없으므로 보안이 가장 중요한 이슈</li> </ul>

출처 : IBK투자증권



Square는 POS(Point Of Sales) 없이 매장에서 모바일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앱 Square Card Case, 동글 Square Card Reader, POS 단말 Square Stand로 POS를 대체하는 결제 사업 Square Register로 시작해, P2P 송금 Square Cash, 상품권, 음식점 예약 및 주문 Square Order 사업, 결제 분석으로 확장했으나, 전자지갑인 Square Wallet은 통폐합했다.

Stripe은 API를 통해 PG 사업을 간소화하는 개발 중심의 결제플랫폼 업체로 온라인 및 모바일 결제 통합 시간과 노력을 줄여준다. 코슬라, 세쿼이아, 안드레센 호로위츠 등 유명 투자기관 외에페이팔 창업자들이투자 중이다.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고객에게 API와 세련된 디자인의 가맹점 관리자를 제공 중이며, 타 개발 플랫폼에도 활발히 통합돼 개발자 친화적인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이밖에 여러 NGO와의 제휴도 홍보 소재로 삼고 있다. 경쟁사로는 Paymill, 페이팔에 인수된 Braintree등이 있다. PG 통합 기간과 개발 노력을 단축하고, 가맹점 관리자의 사용성을 높인다는 USP로 기존 PG 업체와의 경쟁에서 우위에 서서, 가맹점 수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다.

Venmo는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더치페이 서비스를 중심으로 P2P 송금 시장을 집중 공략하며 사업 초기에 Braintree에 인수되었다. 계좌, 직불 카드를 연동할 경우 수수료가 무료, 카드의 경우도 저가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페이스북 로그인으로 송금 활동을 소셜 네트워크에 공유할 수도 있다. Braintree를 통해 API가 공개된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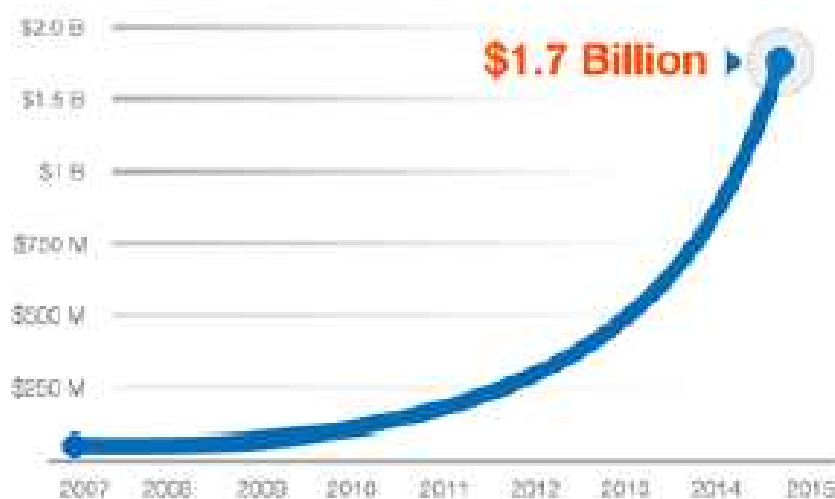
## (2) P2P 플랫폼: P2P 대출

대출에서는 P2P(peer-to-peer) 방식을 통한 서비스가 부상하고 있다. P2P 대출은 개인과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파일을 공유하는 P2P개념이 금융과 접목된 것으로, 기존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 간 직접적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다.

개인 간의 금융거래에서 시작한 P2P 대출은 그 대상이 개인에서 사업체인 P2B 모델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대출 목적도 다양화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06년 2월 P2P사업모델인 Prosper가 처음 설립되었으며, 이후 Lending Club, OnDeck 등 여러 회사가 설립되기 시작했다.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인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기존 은행권은 수익성이 낮은 학자금 소액 대출 등에서 철수하는 등 기존 금융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P2P 대출은 급성장하게 되었다. 동시에 2008년에는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증권거래위원회)가 P2P 대출을 증권으로 등록시키는 것을 요구함에 따라 Prosper와 Lending Club이 일정기간 영업 정지를 당하기도 하였다. 이후 SEC의 조건에 모두 동의하였고, Prosper와 Lending Club은 투자 시 발행증권(Notes)을 위한 유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Folio Investing과 협약을 체결하여 note Trading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OnDeck은 2007년에 설립, 소상공인 대상으로 P2B 대출을 해주었고, 2014년 1~9월 총 매출이 1억 76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하였다. 2014년 12월 17일에 뉴욕증권거래소에서 8억 7천만 달러 규모의 IPO를 하였고, 시가 총액이 20억 달러이다. OnDeck은 자금수요자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자체 알고리즘 기술을 개발하여 대출 여부 결정이 10분 안에 결정된다는 점에서 기존 금융과의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림 5 OnDeck의 대출액 (2014)



출처 : OnDeck 홈페이지

Lending Club은 2007년에 설립, 개인을 대상으로 P2P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4년 12월 11일에 8억 7천만 규모의 OPI를 진행하였고, 시가 총액이 90억 달러이다. 2014년 9월 30일 기준, Lending Club의 총 대출액은 \$6,205,366,548 이며, 총 이자 수익은 \$595,817,848 이다. Lending Club의 대출 절차는 자금수요자(borrower)가 Lending Club 홈페이지에서 대출신청서 작성을 하면, 온라인 데이터와 분석 기술을 이용해서 위험 평가 및 엄중한 신용 평가가 이루어지고(10% 미만의 채택률), 이 신용 평가 기준을 통과한 자금수요자에 한해 적절한 이자율을 부여하고 자금수요자를 자금공급자(Investor, Lender)가 선택한다. 각각의 대출 일부분을 Note라고 하며 한 사람의 자금공급자와 한 사람의 자금수요자를 매칭해주기보다는 자금공급자의 금액을 작게 나누어 여러 명의 자금수요자에게 대출을 실시한다. Note들을 분산 투자하여 투자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리스크를 줄이려는 의도로, 예로 들어 \$2,500만으로도 100개 이상의 Note를 구입이 가능하다. 자금수요자의 신용과 리스크에 기반하여 각각의 대출에 등급을 부여하는데, 가장 낮은 이자율은 가장 위험이 적은 등급(A)에 부여, 반대로 가장 높은 이자율은 가장 위험이 큰 등급(G)에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림 6. Lending Club의 등급별 이자율



출처 : Lending Club 홈페이지

### (3) 연결 플랫폼: 클라우드 펀딩

스마트 플랫폼이 발달함에 따라 금융의 수요자(node)와 공급자(node)가 개인 간 직접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P2P 대출 이외 클라우드 펀딩도 그 플랫폼의 하나이다. 클라우드 펀딩은 자금의 모집자와 제공자간 거래가 온라인상에서 소셜미디어에 의한 쌍방향 소통을 바탕으로 한 관계 지향적이고 집단 기능적 속성을 가진 소셜펀딩(social funding)이다. 클라우드 펀딩 유형은 자금제공자의 이익추구 목적여부에 따라 투자형과 비투자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비투자형은 단순한 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형(donation)과 일정한 보상을 받는 후원형(reward)이 있고, 투자형은 개인 간의 대출형(lending)과 증권을 매개로 한 지분투자형(equity)이 있다.

대출투자형 클라우드 펀딩은 자금이 필요한 개인이 펀딩포털을 통해 자신의 재무 상태, 자금의 사용목적, 상환 계획을 등록하면, 펀딩포털은 진위여부 확인 후 등록을 허가하고, 투자자들은 예치된 금액 내에서 신청금의 일부 금액을 역경매 방식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005년 영국의 zopa.com이 최초로 시작하여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2007년 출범한 lendingclub.com의 경우 개인에 국한된 대출투자모델로서 세계적으로 가장 큰 거래 규모를 성사시키고 있는데 2013년 4월 기준으로 누적 성사 금액이 16억 불을 넘어서고 있다.

지분투자형 클라우드 펀딩은 2010년 영국의 crowdcube.com이 최초로 시작하였다. 미국은 JOBS(Jump start Our Business Startups)법이 계기가 되어, 전 세계적으로 제도화하여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새로운 투자시장을 형성 중이다. 투자자가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기업의 지분증권, 채무증권, 투자계약증권 등의 거래를 가능하게 함으로서 투자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벤처캐피탈이나 기존 제도권 대형 투자금융사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하고 엔젤투자에만 의존해야 했던 스타트업(Startup : 비상장 초기기업)들에 대한 새로운 자금 통로로 활용하고 있다. 기업의 부채비율이 낮아져 자산건전성이 강화되고 초기 기업이 겪는 자금경색기간의 생존율을 높임으로서 사업 성공의 확률을 높이고, 우호적인 엔젤투자자를 많이 확보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7. 크라우드 펀딩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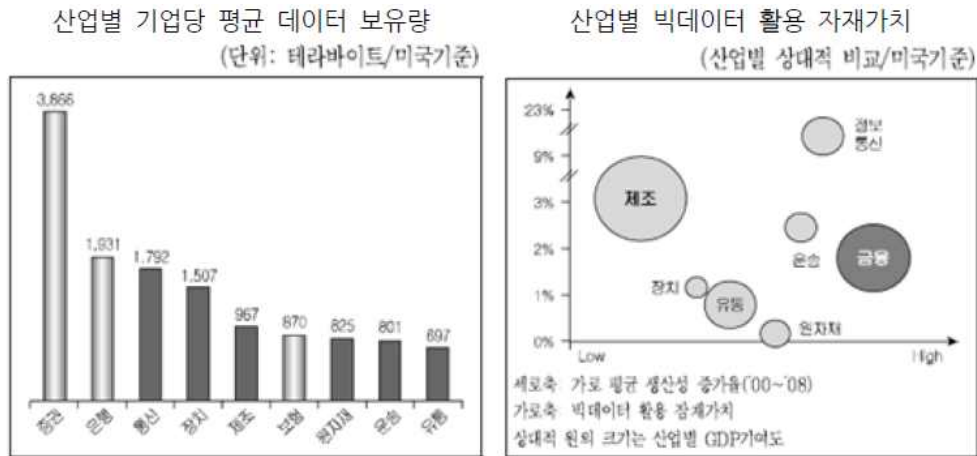


#### (4) 빅데이터 플랫폼

핀테크 기업들은 대출 및 투자 관련 업무의 경우 빅데이터와 소셜데이터 등 대안적인 데이터를 활용한 프로세스를 통해 기존 리스크 산정 및 예측 방식보다도 높은 정확성을 확보하는 등 기존 금융기관들의 핵심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1].

미국 금융산업의 경우 빅데이터의 활용은 아직까지 제조업·통신업·의료산업 등 여타 산업에 비해 활발하지 않은 편이나, 산업별 빅데이터 활용의 잠재 가치가 금융·보험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금융을 이용하고 있고 있으며 상품의 종류도 많은 요인 등으로 인해 데이터의 유입량 및 보유·집적량이 많으며 활용 범위가 다양하여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은행들은 점차 포트폴리오 분석, 트레이딩, 리스크 관리, 마케팅, 보안 등 은행 업무전반으로 빅데이터 활용을 넓혀가고 있다.

그림 8 산업별 빅데이터 현황



출처 : IDC, McKinsey&amp;Company, KB금융지주연구소 '빅데이터의 이해와 금융업에 대한 시사점'

미국 금융, 증권, 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분석을 활용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고객 SNS 등을 통한 실시간 데이터분석을 통해 디지털 마케팅을 강화해 고객유치율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있다[2].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도입해 신용리스크에 대한 조기경보체제를 강화, 신용관리 및 손실예측 처리시간 단축, 비정형 정보분석과 가동성 증대 효과를 얻고 있다. 또한 자영업자 대상 자금관리 지원 상품인 캐쉬 프로 모바일을 개발해 소셜 미디어 분석을 통해 고객 성향을 파악하여 반영하고 있다[2]. 씨티그룹은 IBM사의 왓슨(Watson)이라는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고객들의 거래내역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하여, 신용도가 낮은 고객들을 선별해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여부를 결정하여 대출심사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고객과의 소통개선 및 신규수익원 창출 등에도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3]. JP모간체이스는 SNS상 부동산 관련 정보를 부동산시가 산정 등에 반영하거나, 빅데이터를 통해 소비자 트렌드 분석 보고서를 은행에 판매하는 등 신규수익원 창출 및 소비동향분석 보고서 작성 등에 활용하고 있다[3]. 미국 웰스파고는 빅데이터를 고객맞춤형 서비스에 활용하여 고객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조작 이력을 분석해 고객별 화면버튼을 재배치하고 있다. 만약 송금을 주로 하는 고객이라면 송금 버튼이 가장 먼저 ATM 화면에 올라오고 입금을 많이 하는 고객이라면 입금 버튼이 가장 먼저 뜨는 방식이다.

미국 내 증권시장에서도 빅데이터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Kensho.com은 빅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증권사, 운용사 등 리서치 및 IB를 위한 금융특화 검색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Yodlee는 12500개 이상의 세계적인 소스로부터의 거래 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제 행태에 근거한 데이터 애널리틱스와 시장 리서치 서비스, 마켓 인사이트를 제공하며, Yodlee Financial Cloud는 금융기관과 소비자 인터넷

회사로 하여금 그들의 FinApps를 위한 SaaS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미국의 Seconds Market은 유가증권의 장외거래에 핀테크를 접목시킨 사례로, 비상장주식, 유한회사 지분, MBS, 채권, CDO, 신주인수권, 제한부 주식 등을 보다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플랫폼이다. 로빈후드는 수수료 무료 트레이딩 앱으로, 증권거래를 무료로 제공하나 증권계좌에 든 잔액에 대한이자 및 거래량을 거래소에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얻는다.

보험 분야에서도 다양한 고객정보, SNS 등을 활용한 소비자의 행동 분석 등을 통해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MetLife사는 "Metlife Wall"이라는 고객정보와 관련된 one-stop-platform을 개발(다양한 상품종목을 망라한 70개 이상의 데이터베이스가 통합)하였는데 개별 소비자에 대한 종합적인 구매행동 정보(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들어있으며, 직원들이 이를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Metlife 사는 단순히 은행과의 판매제휴보다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해당 제휴은행에 대한 전반적인 고객 분석 등을 철저히 시행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상품군들 위주로 판매제휴를 하고 있다. 미국 Assurant Solutions는 고객 개인정보와 상담 이력정보를 토대로 고객과 콜센터 직원 개개인의 친화성 정도를 평가하여 고객이 전화했을 때 고객에게 보다 적합한 직원을 실시간으로 배정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 도입 후 6년간 매출 190% 증가, 고객 해약 방지율 117% 상승, 직원 이직률이 2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Allianz 생명은 빅데이터 기반의 'DW(Data Warehouse) &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시스템'을 도입하여, '추가가입 모델', '신규가입 모델', '기존 고객계약 이탈방지 모델' 등 3가지 예측 모델을 통해 고객 유형을 세분화하고 타깃을 설정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추가 가입률이 3~5% 상승했으며, 특히 상위 10%는 종전 대비 4~5배의 가입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관련 보험에서 UBI(Usage Based Insurance)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가입한 자동차운전자는 보험가입자의 실제 주행거리, 주행속도, 급가속, 급제동 등 전반적인 운전 습관 및 행태와 관련된 데이터를 차량에 부착된 'telematics'라는 장치를 통해 종합적으로 모니터링 후 이에 기반 한 보험료율을 책정 받게 된다[4].

결제와 대출, 투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자산관리와 투자자문에도 핀테크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다[1]. 미국에서는 금융계좌 통합관리서비스인 mint.com이 2006년 등장하였고,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금융계좌와 신용카드 정보 등을 종합하여 자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Learnvest(learnvest.com)는 개인들이 스스로의 재무자산관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에셋다이러리(assetdiary.com)는 가계부 방식에 기반을 둔 개인용 온라인 자산관리 서비스이다. 위탁매매 업무에 핀테크를 접목시킨 Motif Investing은 최대 30개 종목의 주식/채권으로 이뤄진 테마 투자전략을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온라인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Robo-Adviser는 디지털 상담 어플리케이션으로 디지털, 온라인을 통해 종합적인 재테크 상담을 해주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유형은 표3에서 보는 것과 같다.



표3\_ 온라인 특화 자산관리회사 Robo-Adviser의 유형

	유형1. 운용형 (Online-based Portfolio Manager)	유형2. 자문형 (Monitor & Give Suggestions)	유형3. 하이브리드형 (Technology-augmented Humans)
주요 서비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고리즘 기반 소프트웨어를 통해 최적자산 배분 후 이에 맞춰 고객 자산을 직접 운용</li> <li>- 리밸런싱, 최적 세제전략 등의 서비스도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고리즘 기반 소프트웨어를 통해 고객 포트폴리오 모니터 및 정기적 투자자문 제공(투자주체는 고객)</li> <li>- 저성과/고비용 상품 교체, 리밸런싱 제안 등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 어드바이저 판단으로 자문·운용 업무를 수행하되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온라인 채널을 활용</li> </ul>
비교	- 주로 AUM 기준 % 수수료부과(0.15%~0.5%수준)	- 주로 월정액 수수료 부과(5~15달러 수준)	- 월정액, AUM기반 수수료 모두 활용
주요회사	- Wealthfront, Betterment, FutureAdvisor 등	- Jemstep, MarketRiders 등	- Personal Capital, LearnVest 등

출처 : 금융투자협회

## 표 미국의 핀테크 규제와 발전전략

최근 미국에서는 IT 기업들이 지급결제 시장 및 모바일 뱅킹 시장을 빠르게 잠식함에 따라, 금융 감독당국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핀테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모바일 자금 규제 및 감독은 여러 연방 및 주 감독기관에 의해 이루어진다.

미국의 자금서비스업자(Money Service Business, MSB)는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으로 구분되며, 주 정부의 인가, 감독, 규제 하에 있다[5]. MSB 면허를 취득한 회사에 한하여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등록된 기업은 금융범죄 조사국에 등록하여 연방은행보안법상 보고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그림 9\_ 미국의 지불시스템 생태계 (2014.9)



출처 : FRB of Boston

미국의 경우 투자자 보호와 금융기관 건전성을 위해 엄격히 금융규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 핀테크 산업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규제가 예측 가능한 규제이기 때문이다. 규모가 작을 때는 규제를 안하다가 규모가 커지면 제도를 정비하여 규제를 하는 네가티브(Negative) 규제 시스템(명확하게 금지한 것 이외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시스템)으로 신생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한 사업을 안심하고 시작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미국은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에 기반하여 비합리적인 규제를 최소화하고 있고, 비조치 의견서(No action letter)라는 면책제도 등 규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들이 활성화되어 있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기관이 특정 사업이 합법인지에 대해 감독당국에 질의 하면 감독당국이 합법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며, 여기서 허용한 것은 추후 감독당국이 징계하지 못하도록 하여,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시도할 때, 비조치 의견서를 통해 합법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 핀테크 관련하여 'CROWDFUND Act'가 포함된 패키지 법안인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 일명 잡스법(JOBS Act)을 2012년 3월 27일 통과시켰고, 이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4월 5일 최종적으로 승인하면서 효력이 발효되었다.

잡스법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으로, 연간 매출이 10억 달러 이내인 신성장기업(emerging growth company)을 대상으로 공시 및 회계감사의 규제를 완화하여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증권감독위원회(SEC :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등록의무 요건이 있는 주주의 수를 500명에서 2,000명으로 상향조정하였고, 연간 5백만 달러였던 소규모 공모면제의 자금 조달 한도액을 5천만 달러로 증액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지분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최초기업공개 이후 5년 동안 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증권법상의 공시규제를 면제해주도록 명시하고 있다.

잡스법에서는 1백만 달러의 발행한도와 2천 달러의 투자한도를 설정하여 소액 지분투자는 크라우드 펀딩의 방식을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자금조달 후 1년 이내에 발행인이 SEC와 투자자들에게 사업을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브로커와 함께 크라우드 펀딩의 중개인(펀딩플랫폼)을 규정하여 이들을 통해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중개인에게 투자자 교육 및 정보 공시와 같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 핀테크 산업은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을 기반으로 예측할 수 있는 금융규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또한 비조치 의견서 제도를 통해 금융감독의 예측력이 높기에 성장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공인인증서 규제와 과도한 개인정보보호 규제 등으로 핀테크 산업이 제대로 시작조차 못하고 있어, 규제완화와 더불어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이 만들어져야 핀테크 산업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1].



## 참고문헌

---

- [1] LG경제연구원 문병순, 허지성, 규제 많은 미국이 핀테크를 선도하는 이유, 2014.12.03
- [2] 농협경제연구소 빅데이터활용 사례와 시사점, 2013.08
- [3] 한국금융연구원 이석호, 이윤석, 금융산업의 빅데이터 활용 및 이슈, 2014.10
- [4] 한국금융연구원 이석호, 자동차보험에서의 UBI프로그램 활용 추세 및 시사점. 주간금융브리프, 2014.05
- [5] 한국금융연구원 이윤석, 이수진, 금융과 통신간 연계강화 흐름과 향후 과제, 2014.12

# Industrial Internet Issue Report

동향 보고서

2015년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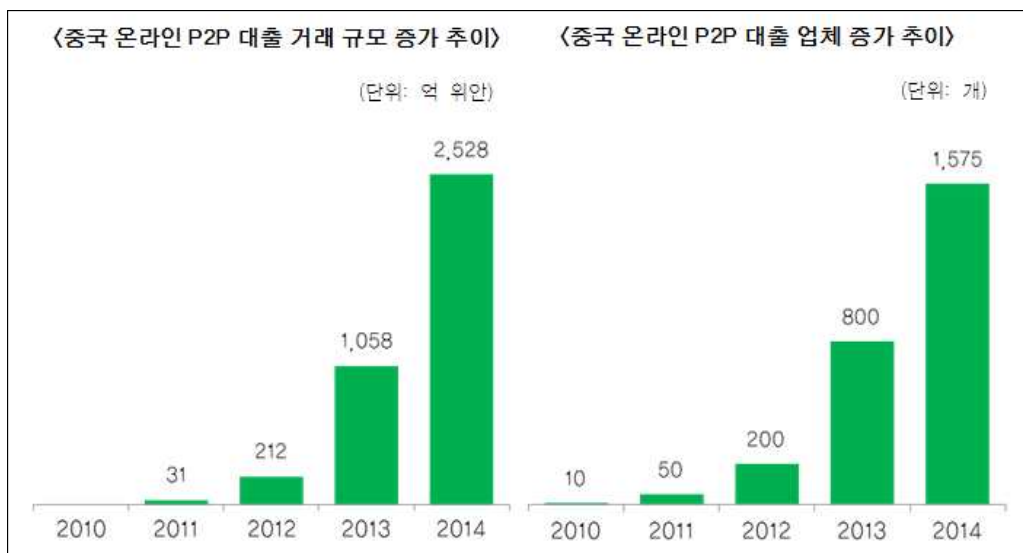
## 중국 온라인 P2P 대출, 영세·불법 사업자 시장 진입으로 부작용 심각

인터넷산업혁신단 서비스산업개발팀

### 성장 일로의 중국 온라인 P2P 대출 시장, 리스크 관리에서 허점 노출

- ▶ 개인이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액의 대출을 중개해주는 온라인 P2P(Peer-to-Peer) 플랫폼 시장은 현재 중국에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 중
  - 중국 온라인 P2P 대출 포털 운영사인 왕다이지지아(Wangdaizhijia)의 2015년 1월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온라인 P2P 대출 플랫폼을 이용한 중국 내 금융 거래 규모는 2,528억 위안(44조 3,9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0% 증가
  - 온라인 P2P 대출 플랫폼 이용자 수는 2014년 상반기에만 18만 9,000명을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대출금을 제공한 투자자 규모는 44만 3,600명에 육박
  - 온라인 P2P 대출 서비스의 수요 증대에 힘입어 관련 사업자 규모 역시 2013년 800개에서 2014년 1,575개로 폭증

그림 1\_ 중국 온라인 P2P 대출 서비스 시장 성장 현황



출처: Wangdaizhijia(2015.1)

- ▶ 중국 온라인 P2P 대출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투자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는 사업자가 출현하는 등 각종 사기 행각도 확산되는 추세
  - 중국 부처합동사무소(Inter-Ministerial Joint Office)의 자료를 인용한 IT 매체 테크인아시아(Tech In Asia)의 보도에 따르면, 2014년 중국 내 온라인 P2P 대출 플랫폼을 이용한 사기 행위는 전년 대비 11배, 2013년 대비 16배 증가('15.4.29)
  - 특히 2015년 1월부터 2월까지 발생한 온라인 P2P 대출 플랫폼 관련 사기 사건은 2,200건을 기록해, 이미 2014년 8,700건의 1/4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
- ▶ 고객의 대출금 연체나 무리한 수익률 책정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온라인 P2P 대출 사업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중국 시장조사업체 잉칸 그룹(Yingcan Group)에 따르면 2014년 파산하거나 지급 불능을 선언한 온라인 P2P 대출 업체는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275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 중국 온라인 P2P 대출 시장, 신용 평가 시스템 도입 필요성 증대

- ▶ 온라인 P2P 대출 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 정부는 대책 마련에 착수
  - 테크인아시아에 따르면 현재 중국 정부의 중앙은행 역할을 담당하는 중국인민은행(People's Bank of China)은 P2P 대출 사업자에 대한 규제 초안(draft)을 작성 중
- ▶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인 규제에 앞서 적절한 신용 평가 시스템 도입을 통해 온라인 P2P 대출 시장의 활성화와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 선진국과 달리 중국은 공공 신용 평가 체계가 취약하기 때문에 온라인 P2P 대출 사업자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하거나 대출 신청자의 재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
  - 따라서 소비자들이 온라인 P2P 대출 사업자의 건전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도구를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동시에, 사업자 역시 고객의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나가는 것이 필요
- ▶ 각종 규제나 안정 장치를 비롯해 핀테크 업계의 자정 작용도 요구되고 있는 상황
  - 일례로 중국의 검색 엔진 바이두(Baidu)는 2014년, 키워드 검색과 자체 블랙리스트를 통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온라인 P2P 대출 사이트 링크를 800여개 제거해 주목

#### Reference

1. Bloomberg, "China Online Peer-to-Peer Lending Promises 9% Return", 2015.2.13
2. Tech In Asia, "P2P lending scams jumped 11-fold in China last year, on track for even more in 2015", 2015.4.29
3. 网贷之家, "网贷之家发布中国P2P网贷行业2014年运营简报", 2015.1.1

## 엑센츄어(Accenture),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시

인터넷산업혁신단 서비스산업개발팀

### 엑센츄어(Accenture), 글로벌 금융 업체들과 공동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핀테크 스타트업 발굴

- ▶ 글로벌 컨설팅 업체 엑센츄어(Accenture)와 세계 우수 금융기관<sup>1</sup>들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스타트업 대상의 핀테크 교육 프로그램 '아시아-태평양 핀테크 이노베이션 랩(FinTech Innovation Lab Asia-Pacific)'이 개시('15.4.29)
  - 2회째를 맞는 이번 프로그램은 총 12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핀테크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우수 스타트업 발굴이 주요 목표
- ▶ 가상 화폐를 비롯해 빅데이터 분석, 모바일 결제, 금융 리스크 관리, 컴플라이언스(compliance)<sup>2</sup> 분야에 이르기까지 혁신 금융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은 누구나 '아시아-태평양 핀테크 이노베이션 랩'에 참여 가능
  - 2015년 5월까지 참가 관련 서류를 제출한 핀테크 스타트업은 10개 금융기관의 심사를 거친 후 7개 업체로 축소
  - 선발된 7개 업체는 2015년 8월부터 홍콩에 체류하며 '아시아-태평양 핀테크 이노베이션 랩'의 프로그램을 소화
- ▶ '아시아-태평양 핀테크 이노베이션 랩' 참가 업체들은 워크숍, 패널토론, 사용자 그룹과의 회의, 프레젠테이션 등을 진행하며, 금융 서비스 분야 경영진의 멘토링을 바탕으로 기술과 비즈니스 전략을 개발하고 조정
  -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11월 초에는 투자자의 날(Investor Day) 행사를 통해 각 스타트업의 핀테크 서비스를 공개하고 투자자들을 유치

1 ▲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 중국건설은행(China Construction Bank) ▲ 중신은행(China Citic Bank International) ▲ 호주커먼웰스은행(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 ▲ 크레딧스위스(Credit Suisse) ▲ HSBC ▲ JP모건(J.P. Morgan) ▲ 메이뱅크(Maybank) ▲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 ▲ UBS 등으로 구성

2 핀테크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금융 관련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련의 시스템

## 엑센츄어의 '핀테크 이노베이션 랩',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산실로 자리매김

- ▶ '아시아-태평양 핀테크 이노베이션 랩'은 2010년 출범한 '뉴욕 랩(New York Lab)' 프로그램에서 시작
  - '뉴욕 랩'은 엑센츄어가 뉴욕 시(市) 산하 투자전문 조직인 '뉴욕시 파트너십 펀드(Patnership Fund for New York City)'와 함께 구성
  - 이후 엑센츄어는 2012년 런던 시(市) 및 영국의 주요 은행들과 함께 '런던 핀테크 이노베이션 랩(FinTech Innovation Lab London)'을 설치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 지역을 전 세계로 확대
  - '아시아-태평양 핀테크 이노베이션 랩' 역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핀테크 스타트업 발굴을 위해 2014년부터 개시
- ▶ 엑센츄어의 '핀테크 이노베이션 랩' 프로그램은 출신 기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며 대표적인 핀테크 스타트업 발굴 프로그램으로서의 입지를 확보
  - 뉴욕 랩 과정을 이수한 24개의 졸업 기업들은 프로그램 참여 후 1억 6,000만 달러(1,756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데 성공
  - '런던 핀테크 이노베이션 랩' 역시 2년여의 운영 기간 동안 프로그램을 이수한 14개 기업이 3,500만 달러(384억 원)의 투자금을 확보했으며, 은행권과 약 50건의 계약을 체결해 프로그램 참여 이전 대비 170%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
  - 2014년 진행된 '아시아-태평양 핀테크 이노베이션 랩' 출신 스타트업도 프로그램 종료 직후 600만 달러(65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
- ▶ '아시아 태평양 핀테크 이노베이션 랩' 담당자인 엑센츄어의 존 앨러웨이(Jon Allaway)는 자사 프로그램의 강점으로 현장에 종사 중인 전문가의 멘토링과 조언 서비스를 지목
  - 비즈니스 초기 및 성장 단계에 있는 참가 업체들은 '아시아-태평양 핀테크 이노베이션 랩'을 통해 제품 개발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금융 분야 고위 경영진과 접촉함으로써 시장 특성에 부합하는 각종 노하우를 전수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

### Reference

1. E27, "Accenture is back for batch 2 of its FinTech Innovation Lab Asia Pacific", 2015.5.6
2. FinExtra, "Accenture and FIs kick off Apac Innovation Lab programme ", 2015.4.30
3. MarketWatch, "Accenture and Top Banks in Asia Call for Applicants for FinTech Innovation Lab Asia-Pacific 2015", 2015.4.29

# 생체 인식 기술, 핀테크 산업 활성화의 핵심 기재로 지목

인터넷산업혁신단 서비스산업개발팀

## 생체 인식 기술, 핀테크 서비스의 보안 및 사용자 편의성 확보 수단으로 주목

- ▶ 투자 전문 매체 인베스토피디아(Investopedia)가 핀테크 서비스의 개인 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체 인식(Biometric) 기술을 지목('15.4.20)
  - 생체 정보는 복제가 불가능하며 망각의 염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각 개인마다 고유하기 때문에 도난이나 위조를 방지할 수 있어 개인 인증 수단으로서 매우 효과적
  - 특히 높은 보안 수준이 요구되는 시설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왔던 생체 인식 기술이 스마트폰의 지문인식 기능 등 최근 일반 대중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핀테크 서비스와의 접목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 ▶ 생체 인식 기술은 핀테크 서비스의 보안 강화뿐만 아니라 별도의 로그인 절차를 생략시키는 등 서비스 편의성 개선에도 기여
  - 이와 관련해 정보기술 전문 업체 스테리아(Steria)의 조사 결과를 인용한 언론매체 라콘투어(Raconteur)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국민 중 81%가 개인 인증 수단으로서 생체 인식 기술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표시('15.4.30)
- ▶ 한편, 생체 인식 기술과 금융 서비스의 정합성으로 인해 관련 시장 규모는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
  - 인베스토피디아는 생체 인식 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 시장 규모가 2020년 80억 달러(8조7,808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생체 인식 기술에 대한 금융권 관심 확대...소비자 신뢰 부재는 걸림돌

- ▶ 핀테크와 생체 인식 기술의 융합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스타트업의 출현도 본격화되고 있는 추세
  - 지불 결제 과정에서 얼굴 인식을 통한 본인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싯유(IsItYou), 음성 패턴을 이용한 본인 인증 기술을 개발 중인 네미시스코(Nemesysco) 등 생체 인식 기반 핀테크 서비스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 캐나다의 생체 인식 기술 스타트업 니미(Nymi)가 릴레이 벤처스(Relay Ventures), 이그니션 파트너스(Ignition Partners), 마스터카드(Mastercard) 등으로부터 2014년 1,400만 달러(152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등 투자 진영의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

- ▶ 생체 인식 기술의 활용을 모색하기 위한 전통 금융권의 움직임도 활발하게 전개 중
  - 싱가포르의 OCBC 은행, 영국의 로열 बैं크 오브 스코틀랜드(Royal Bank of Scotland) 등 주요 금융 기관들은 이미 본인 인증 과정에 애플(Apple)의 아이폰(iPhone)에 탑재된 지문 인식 기술 '터치 ID(Touch ID)'를 활용하는 등 생체 인식 기술을 도입
  - 홍채 인식 기술 스타트업 아이베리파이(EyeVerify)가 금융 업체 웰스 파고(Wells Fargo), 미국 통신업체 스프린트(Sprint) 등으로부터 2014년 600만 달러(65억 원)를 조달하는 등 관련 투자도 적극적으로 전개 중
- ▶ 그러나 일각에서는 생체 인식 기술에 대한 사용자 신뢰도가 기대보다 높지 않은 상황이며, 기술적 보완을 통한 사용자 인식 전환이 이뤄져야만 활용이 본격화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
  - 스테리아의 조사에 따르면, EU 국민 중 현재 금융 기관에서 활용 중인 본인 인증 방식인 개인 식별 번호(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PIN)를 생체 인식 기술이 대체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이 45%에 불과
  - 스테리아는 생체 정보의 경우, 신용카드 데이터 등과 달리 해킹을 당했을 때 이를 변경할 수 없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응답률이 낮았다고 설명
  - 이와 관련해 라콘튜어는 생체 인식 기술에 대한 사용자 불신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증 방식에 생체 인식 기술을 더하는 멀티 인증 방식(multi-factor authentication)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Reference

1. Holland Fintech, "THE POTENTIAL OF BIOMETRICS", 2014.11.28
2. Investopedia, "Biometric Banking: Huge Prospects For Tech Profits", 2015.4.20
3. Raconteur Media, "REVIEWING BIOMETRIC PRIVACY CONCERNS", 2015.4.30



# Industrial Internet Issue Report

국내 유망 핀테크 기업소개

2015년 5월

## 더치트(THECHE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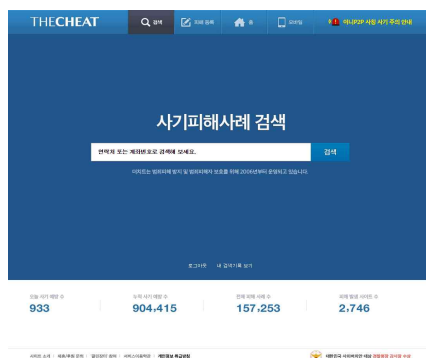
### ▶ 기업 개요 (<http://www.thecheat.co.kr>)

주요 서비스명	더치트, 클린콜
대표자	김화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前 CJ넷마블 근무</li> <li>• 前 넥슨코리아 근무</li> <li>• 前 유네스코APCEIU 근무</li> </ul>
기업규모	벤처기업
창업시기	2012. 03
인원	5명('15.1Q)
핀테크 분야	사기(Fraud)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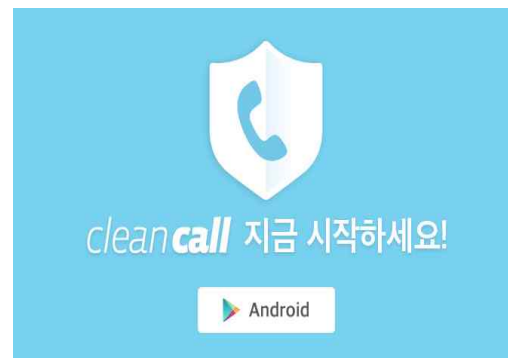
### ▶ 서비스 내용

	더치트(웹 사이트)	클린콜(안드로이드 모바일 앱)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간 계좌이체 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는 서비스</li> <li>• 사기 범죄에 사용된 휴대폰, 계좌번호 정보를 DB화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기 방지 기능이 탑재된 통화녹음 서비스, 전화 수신 시 발신자 연락처의 범죄사용 여부 등을 안내하여 추가 피해 방지</li> <li>• 피해를 당한 경우 녹음된 내역을 증거자료로 활용 가능</li> </ul>
출시일	2006. 01. 04	2014. 01. 30
협력체계	네이버 등 마켓 및 금융사 제휴	구글플레이, 네이버앱스토어, 티스토리 등을 통해 배포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사이버수사 담당 인력의 100% 수준인 1,300명 이상의 경찰이 수사에 활용하고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음질 통화녹음 기능 제공</li> </ul>
적용대상	모든 개인 간 이체 거래 사용자	통화녹음 및 전화정보 안내 기능이 필요한 사용자

<더치트>



<클린콜>



### ▶ 기술 및 사업 문의

김화랑 대표, [prokhr@thecheat.co.kr](mailto:prokhr@thecheat.co.kr), 070-7152-5263

## 페이게이트(Paygate)

### ▶ 기업 개요 (<http://www.paygate.net>)

주요 서비스명	AA결제, MCP결제
대표자	박소영 • 1999년 국내 최초 개인용 전자지불 시범서비스 실시 • 2008년 국내 최초 아이폰 내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제공
기업규모	중소기업
창업시기	1997. 07
인원	31명('15.1Q)
핀테크 분야	결제솔루션(전자지불서비스)

### ▶ 서비스 내용

	AA(Amount Authentication)결제	MCP(Multi Currency Pricing)결제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인증결제 (ISP 및 안심클릭)는 IE기반으로 NON IE의 디바이스와 브라우저/OS에서 결제 진행이 어려움</li> <li>AA인증 결제는 웹기반 결제 프로세스로 모든 브라우저/OS 및 디바이스에서 인터넷만 연결되면 결제 가능</li> <li>불편한 별도의 플러그인 설치 불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 다중통화결제를 의미</li> <li>온라인 사이트에서 해외 고객이 카드결제를 할 때 그 카드 소지자의 자국 통화로 결제가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li> </ul>
출시일	2014. 08. 15	2013. 03. 13
협력체계	불필요	VISA, MASTER, JCB 카드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용카드 암호 승인금액을 인증코드로 이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율변동에 대한 위험감소</li> <li>최종결제 금액을 즉시 알 수 있기 때문에, 해외 고객들은 카드청구서를 기다릴 필요없이 효율적으로 자금관리가 용이</li> </ul>
적용대상	온라인쇼핑몰	온라인쇼핑몰

<AA결제>



<MCP결제>



### ▶ 기술 및 사업 문의

paygate@paygate.net, 02-2140-2700



한국핀테크포럼  
KOREA FINTECH FORUM

발행일 2015년 5월

발행 및 편집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산업혁신단 서비스산업개발팀, 정책연구단 미래인터넷팀  
주소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가락동 78) IT벤처타워 Tel 02.405.5118

- ▶ 본지에 실린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므로, 우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KISA Report의 내용은 무단 전재할 수 없으며,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